

(설 화)

제 목 : 이시백이 부인 이야기  
제 보 자 : 이 성 근 ( 남. 당 82 세 )  
주 소 : 구리시 동구동 15  
조사일시 : 1997. 11. 27. 이성근 가

내 용

이시백이가 좌의정인데 옛날에 고구려에 인조대왕 적이거던요, 그 인제 그냥반이 장가를 어디루 들었는고 허니 강안도 음강산으루 갔서요 박춘서 딸이에요, 그마누라가 근대 인제 거길 갔는데 으떻게 여자가 못생겼는지 그냥 남자가 하인을 데리구 갔다 그냥 나가 잡혀졌다구 죄 마누라가 초래청에 저기저 색시가 신부요 그래는 바람에 그걸보니깐 그냥 얼굴은 곰보구 키는 처낭 지팽이 것구 시커먼대다가 키는 화방맹이 것치 큰대 그걸보구 그냥 죄 잡혀졌다구요, 게 뭐 정신덜을 채려 가주구 그냥 초래청에서 초래두 못허구 되돌려서 그냥 바루 왔다구요, 아 그래는데 매칠오는 대두 영낙읍시 삭각가말 하인을 데리구 삭각가말 들을 태가주 뼈적뼈적 허는데 그 बे기실은게 여전이 서울꺼정 쫓쳐 온다 그랜말이죠 그래 이주막에 가서 자문 그 주막엘 꼭 쫓쳐오구 저리가문 저리 쫓쳐오구 그래 저걸 따구 보내야 할텐데 저걸 집을 우떡게 가칠가나 그래는데 영낙읍시 뒤만 꼭 쫓거던요, 그래 여기쓰문 으떻게 알구 뒤쳐 졌다가두 꼭 고기와서 차져 옆에와서 들구 아 그래 잔칫날 그 집안에서 덜 전부 죄와서 잔칫날 그과한데 아 손님덜이 그걸보구 기절초풍을 허구 죄 내폐서요 그냥 하인꺼정 종꺼정 죄 달아나구 손님온 사람덜이 어휴 무슨 사람이 그럭케 무섭냐구 그래군 그냥 싹 손님이 떠났군요 그냥 그 잔치가 아주 그냥 다 파탄이 났잔아요 아 그랜데 그래두 시아부지는 으떡해 혈수가 읊서 바루보질 못허구 자기내 집에 왔스니 자기내 책임 있잔아요, 그래니깐 저짜 저 외판 방이나 하나 치서 후원방이나 하나치서 나오지두 못허구 통 비질안케 해예지 저 무선사람들이 있어서 하인덜이 통 나오질 못허구 별벌 뜨니깐 외따루다가 두군 거기다 갔다 그냥 두구는 하루밤 세때 드려보내 줬다구요, 그래 세때 드려 보낸는데 아 하루는 한 미래에 그럭케 해줬는데 오즘요강을 조서 거기서 종덜이 받아내는데 종덜덜이 자기가 가서 방에 들어가 가주 오는게 아니라 문을 이럭케 때트려 노쿠

주무는 내보내구 갖다주구 그래는데 왜수아닌 백발이지 뭐유 아들두 통 실타구 안디려다 보구 시어머니두 통 안보구 그냥 종하나만 허는데 종두 무섭거던요 그래 이력케 문틈으루 보든 줄칭 그 탈을 쓰구 있스니 저 무슨사람이 저 사람두 아니구 먹긴 여전이 먹구 대변누구 오줌누구 그러는데 또 그 가뒤노니깐 만이치기 실으니깐 쪼금씩 갖다주거던 밥두 그냥 생각나는대루 쪼금허구 뭐 반찬두 쪼금 주니깐 생으루 굶는거 밖에 있잔아요, 사람이 아 그런데 하루는 인조께서 그나라에 조복을 죄 갈어덜 입으 그래거던요, 그래니깐 조복을 아마 푸른빛츠루 모두 죄 갈어 싹 입기루 했는데 그 짐두 조복을 허래니깐 아 그거 하루이틀에 짓기가 어려운데 벌써 그 못생겼서두 그런일은 죄알어요, 가만이 안져서 종덜어 재 오늘 나라에서 대감이 나오시든 조복을 갈어 입으실태니깐 무슨빛츠루 허래니깐 내가 그걸 알구 있스니 그 감만 디려 보내든 내가 해줄테니 금방 해줄테니 그거나 걱정허지 말구 디려 보내라 그래거던요 아 아씨께서 으떻게 아세요, 대감이 오시지두 안었는데 아나 내가 다알구 있스니 틀림읍슬거야 이래구 헌단 말예요, 그래 인제 마님헌태 아 새로들어온 저 아가씨께서 금강산택한태 엔날엔 택이라 거든요, 금강산에서 오신택이 아 그 대감조복을 갈어입구 오시든 그 새아씨가 제신다 그래는데 디려 보낼까요 글세 아니 지가 그걸 으뜩해 아니 그래니깐 아 영감이 참 췌내에 들어 갔다가 오시는데 마누라가 물어 봤단 말이죠, 아 영감님 오늘 나라에서 뭐 조복을 새로 지덜 아무날꺼정 갈어 입으시 랜대믄요, 그랬드니 아 그걸 으뜩해 알었수 아 새애기가 그래든대요, 아 가만이 들어 안져서 으떻게 알었서(제보자:하-하 웃으며)이래구 허잔아요 아 그 질줄아나 지가 그력케 못생기구 못헌게 아 이래니깐 새님이 정말 욱신다구 어디 그럼 한 번 그 꼬라구니가 그러니 감은 어디 있스니 내 싹허구 바늘허구 해서 디려 보낼테니 어디 그 지보래라 메칠이나 지야 할까 한 댓새지야 할텐데 그 어렵잔아요, 수노쿠 학두 맨들구 모두 죄해서 노래믄 그게 보통일이 아니거던요, 큰웃이니깐 아 그래서 인제 참 감을 갖다주니 바느질을 허드니 바늘허구 싹허구 디려 보냈는데 해요 근대 똑 싹을 그냥 똑 이 바동아줄 거튼걸루 꼬매요 이래거던요 아 그럼 조복만 버리지 얼른 빼서오지 바늘두 똑 작대기 만해요 이런걸루 꿇중 허구 있드라구요 아이구 이런 마한년 너 때문에 괜히 그감이 그게

상당히 귀찮기가 어려운건데 엔날엔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어려운데  
 옷버려 왔구나 이런 괜히 갖다 줬다, 큰 걱정을 헌단 말예요, 마누라가 아  
 그게 실을 그래 오라줄 거튼걸루 새끼 거튼걸루쪽 승덩승덩 꼬매구 게  
 바늘은 작대기 거튼걸루 그게 그게 말두 안돼는거지 어서가 빼서 오너라  
 이래구 성화거던요, 아이구 가만있스라구요 이랬단 말이죠 그 색시가 아  
 씨 오옷버려요 그거 빨리 내노세요, 도루 대감마님이 그냥 펄펄떠구 야  
 단이예요, 그래니깐 아따 제길 아 도시시간만 더 있스면 다 제 보낼테니  
 걱정말어 이래거던요, 아 그럭케 허문 나두 음방 화요 이랬말이죠, 그종  
 이 옷감만 아씨 버렸서요, 근대 그 똑 이럭케 꼬매논게 그냥 남이 보겐  
 그냥 흉상시러운게 그 망태 그냥 이럭케 여기저기 고물 꼬매듯 여기저기  
 꼬매 왔단말예요, 옷시라구 그 허는것두 그럭쿠 참 그거 이상허다 이상  
 허다 그래군 안주거던요, 감을 내노래니깐 아 내가 현대니가 왜 그래나  
 구 그래 어디 대감마님이 시키니깐 가서 도루가서 그랬드니 아 그래 그  
 빼서오지 방문을 열구 무서운걸 어떡케 들어갈수가 있어서야죠, 아 뺏질 못  
 했니 안줘요 이래거든요, 그래 못빼셨니 그래니깐 안줘요 도시시간만 있스  
 문 다 현대요, 아니 그 해허구 저이 학만 맨들래두 메칠이 걸리는데 그  
 걸다 수를 왔대 그래니깐 걱정말라구 그래니깐 모르겠서요, 그래니깐 가  
 만도라 도시시간이면 꼬치난데니 어디 시간만 기다려 보자 아 도시시간 후에  
 슬슬 가봤단 말이죠 아 다해노쿠 썩 대려 왔는데 아 기가 맥히거던요,  
 아 그래서 돼서 마님 한테다 이거 아씨가 새루 했는데 이럭케 빨리 짓스  
 니 으떻케 댜거예요, 대간절 아 보니깐 세상에 그럭케 잘 험게 읊서요,  
 바누질을 남이 보기에 그냥 오라줄 가튼 실루허구 요 작대기 가튼 바늘  
 루 뚝 뚝허느쿠 으설프게 했는데 아 그럭케 잘 해왔단 말예요, 그래 인  
 제 그 조복을 입었는데 대감헌태 꼭 맞거던요, 치수꺼짐 그 참 마누라가  
 영감더러 입어보래니깐 아 으떻케 이럭케 꼭 맞게 이럭케 잘했소 그 누  
 가 졌소 아 새애기가 졌는데 글세 꼬라구니가 이래두 이게 무슨 재주지  
 모르겠수 우덜해 남은 일주일씩 가두 못해논는데 그게사홀만에 그냥 깨  
 끗하게 이럭케 죄 해왔스니 미리 다해왔스니 무슨 재주지 모루겠소, 그  
 런 말이지 그래 아 그숨씨는 조쿠라 그 밤이나 좀 잘주구 근대 밥잘주진  
 종년덜이 뚱싸구 오줌싸구 그래니깐 그거 치우기가 실으니깐 굼졌단 말  
 예요, 디리 허위보고만 디리 했지 갖다 줬다구 그래기만 허구 누른밤 찌깨  
 기나 쪼금주구 건거니나 한가지 모 있스문 갖다 구먹으루 디리 밑문

그냥 램다오는 거예요, 디려다 보기가 실어서 아휴 병신이 은제 이런 걸 다 깨끗하게 나서 치느냐구 아이 무서워 이래군 아무래두 그 병자 취급하듯 허니깐 팔세가 심허죠 종한태두 아 인제 그 입구 오래는날 그 조복을 새롭게 깨끗하게 입군 이래구 갖스니깐 그 만조백관이 죄 모였는데 임금이 이리오라구 그래드래요, 그 인제 좌의정이니깐 임금 앞에 바짝 있잔아요, 그래가서 뜯 보니깐 거 희한하게 잘졌거던요 옷을 인간사람이 진게 아녀요, 그게 그래 그조복은 그신은 누가 그럭케 잘졌소 아 즈이 자부가 졌습니다, 그래니깐 아 그러냐구 그 어쨌 그럭케 잘졌느냐구 그런데 이거 진이가 자부가 짓대문 왜 자부를 금져 그랜 말이죠, 임금말이 저게 학하나가 저거 글쓴 형상이야 금구있는 형국이야 저게 임금두 바루 밧죠, 아 사실은 그러습니다, 즈이 자부가 못생기구 얼굴이 무섭게 생기구 흠해서 후원에다 뒤가주군 그 종덜더 러 밥을 갖다 대접허래니깐 제때에 잘 안줘서 무진장 글멋나 봅니다, 그 그것봐 그래 저 하난 저건 사내구 이거 여잔대 이게 글쓴 주린 형상이야 배가 고파서 주린 형상으루 해왔스니 사실 근본을 속이진 안 큰 이랜단 말이죠, 그래니깐 극구 울썸니다, 그랜 말이죠 그래 그때부턴 애 집안에 모두 하인덜을 불러가주 왜 새애기를 밥을 잘 대접이나 허지 밥꺼정두 금졌느냐 그래구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래니깐 아이구 그 소변 받아내구 그래는게 무서서 앞에 가기가 실어서 으편편 좀 들 드렸습니다, 쪼금씩 드렸습니다, 그래니깐 인젠 한사발씩 제대루해서 잘해야지 느덜 잘못해문 나한테 야단 맞는다구 야단을 쳤거던요,그랜 메칠있다 보니깐 한 이럭케 자세히 보니깐 그전 사람이 아녀요 판사람 이에요, 그 이상두 시렵다 보니깐 그게 하늘에 선년대 그 하늘 선녀가 옥황상제 앞에서 이 화축를 물을주다 그 꽃핀거 한송일 고만 이럭케 물을주다 찍어트러서 그 죄루다가 인간우루다 태어나서 박춘서에 따님이 됐대요 그래가주군 병자호란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이가 나라에다 글을써서 상서를 했는데 이까진 여자가 우리나라 암탁이 울면 망헌다구 그일 안썼대요,그 그이는 백만 아니 천만이 들어와두 그까 짓것 사흘이문 다 잡아 음세버린다구 그랬는데 그이를 쓰질안쿠 여자가 일을허문 암탁이 운다구 이따구 소릴허구 디리 밀어버리구 밀어버리구 고만도 가주구 병자호란 날리가 났는데 그때에 그런거를 알구 그냥반은 한 오리밖에다 이럭케 낭굴 여기 저기 심거 노쿠는 하여간

저늬덜이 와서 여자덜을 죄 토벌해 갈테니 이 나무심군 표를 여기저기 써갔군 이 안우루만 들어서든 아무일 읊슬테니 그저 그 그안으루 내가 간데가 있슬테니 날 보구 고기에만 있스라 그런 말이죠, 거기 와 있는 사람은 깨닫읍서두 그밖에 있는 사람덜은 그냥 중국으루 잼혀가는데 거기 여자가 만이 된대니깐 또 이요춘이 아니 저이 그래니깐 응글대 아우가 그까짓 기집년이 그럭케 재주가 조태는데 내가 한 일개 사단만 가주가서 그냥 죄 쥐잡어 죽이듯 허구 그 기집년덜을 죄 끌어 온다구 이래구 거길 쳐갔단 말예요, 아 거길 치니깐 그냥 이 팔만검사 진우루 쳐나서 그냥 들어오는데루 공중에서 그냥 가해신장이 그냥 칼루 내쳐서 흠박 다죽였대요, 그걸 그래서 그때 응글대가 어휴 거기 다시 군인 보내지 말구 우리나라 살어서 가구 그 여자덜 거기 읊는데나가서 축여 가자구 칠십두 조우 팔십두 조아 막 여자막 데리구 가구 남한산상 그 인조가 손가락 깨무러서 혈서씨구 저 광해두 봉림대군 호종 그리 거기서 포위당해서 싹 죄데리 가구 뭐 십만인가 멧명을 데려 갔대요, 여자덜을 그래가주구 애두배구 십년만에 차저왔대는 구려 그래 미꾸녀이나 셋구오라구 그랬대요, 나중에 십년후에 병자호란에 그럭케 망했대요, 그런 여자를 내쫓스면 그런데 나중에 아주 천해일색이가 되서 그 이시백이 아들이 반했서 그 여자헌태 인간사람이 아니구 선녀란 말야 하늘에 그 박춘서 딸이래요 그런 예기가 있서요 ——